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종의 통치 아래 그분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신다 [학개 2:20-23]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20 그 달 이십 사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1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 열국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엮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엮드러지리라 23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나쁜 소식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개의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정치적 불안정, 적대감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메시지로 자신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 오십니다.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종의 통치 아래 그분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 영광스런 승리: 이전 장에서 선지자 학개의 메시지가 총독,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초점은 스룹바벨로 좁혀졌습니다. 학개는 스룹바벨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21절과 22절에서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21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 열국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엮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엮드러지리라* (학개 2:21-22).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한 새로운 시대, 곧 모든 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리에 하나님 외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서지 못하도록 확실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와 당시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 그리고 최종 성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둠을 대항한 하나님의 크신 승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위대한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내면과 일상의 삶 속에도 역시 불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분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2, 선택된 통치자: 우리는 이것을 오늘 성경본문 23절에서 학개가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굳건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지목하고 그를 인장반지에 비유함을 통해 그 약속을 재확인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귀중한 인장 반지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 번 그분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으로 인도할 통치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통치자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예수님)이 오셨고 그분께서 현재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 찾도록 이끄십니다.